

보도자료

2010년 8월 19일(목) 배포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이용자보호국 이용자보호과 이재범 과장(☎750-2670)
이용자보호과 고상호 사무관(☎750-2680) kosangho@kcc.go.kr

「2010년도 방송통신 품질평가 워크숍」 개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8월 19일(목) 오후 1시 30분, 방송통신위원회 14층 강당에서 '2010년도 방송통신 품질평가 기본계획(안)' 마련을 위해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방통위에 따르면, 3G 이동전화(음성·영상 전화)는 '09년도 평가결과로 나타난 품질'미흡'지역(485개 읍·면·동)은 정부가 평가하고, 나머지 지역은 2G 이동전화, 인터넷전화 등 전반적으로 품질이 양호한 서비스와 함께 사업자 자체측정으로 전환하되 측정결과를 정부가 검증한다.

또한, 유무선데이터서비스(초고속인터넷, 3G 데이터, WiBro, Wi-Fi)는 건물내, 지하철 등 실제 서비스 이용환경에서의 품질을 정확하게 평가에 반영하기 위해 이용자가 직접 평가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이용자가 품질을 측정하고 그 결과는 자동으로 수집되는 품질측정 S/W를 개발·보급하는 한편, 품질측정 S/W를 통해 모든 이용자가 전국 구간 속도(다운로드)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09년도의 평가방법을 보완하여 평가결과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였다.

그리고, 그간 평가를 하지 않았던 방송서비스는 유료디지털방송(IPTV, 디지털케이블, 위성방송)을 대상으로 이용자의 서비스 선택시 도움이 되는 품질지표(화질, 채널전환시간 등)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여, 방송통신 서비스의 종합적인 품질정보를 제공한다.

방통위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2010년도 방송통신 품질평가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2010년도 품질평가를 시행할 예정이다. 끝.